

제22서경호 침몰사고 여수 현지 수색상황 점검 및 피해자 가족 위로

- 강도형 해수부 장관, 어선사고 수색상황 점검 및 상황점검회의 개최 -
- 국동항 가족대기실을 찾아, 수색·구조 상황 설명 및 피해자 가족 위로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9일(일) 전라남도 여수시를 찾아 같은 날 새벽, 거문도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트롤 제22서경호 피해자 수색·구조상황을 점검하고 가족대기실을 찾아 피해자 가족을 위로했다.

강 장관은 먼저,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피해자 수색구조 현황을 점검하고 수색대원을 격려하며 수색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.

이어서, 강 장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여수시청에서 행정안전부, 국방부, 외교부, 해양경찰청, 전라남도,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별 수색구조 활동과 피해자 가족 지원 사항을 점검했다.

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“수색구조와 가족 지원 등 여러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, 각 기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현지 상황점검회의를 마친 후, 강 장관은 여수 국동항 청정위판장에 마련된 가족대기실을 찾아, 현재 수색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설명하고, 피해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자 가족을 위로했다.

정부는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색 구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50)
	어선안전정책과장	담당자	사무관	이강은 (044-200-5526)